

# 금융위원장 축사

2019. 10. 14.

## 금 용 위 원 회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써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박인영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Space BIFC라는

새로운 핀테크 육성의 장을 열어주신

오거돈 부산시장님과 김지완 BNK 금융지주 회장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U-Space BIFC는 국내 최초로

지자체와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한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지원 공간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이 곳에서 자금지원, 투자유치 연계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부산시) 입주기업 재정지원(임대료, 인건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BNK금융그룹) 핀테크 랩 운영, 투자유치지원 등

U-Space BIFC는 부산시를

핀테크 친화적 도시로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나아가 핀테크가 금융중심지 부산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 II. 핀테크의 성장과 변화

---

이 자리에 오기 전 U-Space BIFC에 입점하기로 한 입주 핀테크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제·송금분야에서부터 자산관리, 보안·인증, 클라우드펀딩,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슈어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저변이 한층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핀테크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생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결제, 온라인 대출비교, 비금융 신용평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일상 속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지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가 경쟁과 협업을 거듭하며 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Ⅲ. 향후 핀테크 정책방향

---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과감하게 정책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① 먼저, 금융분야 샌드박스 운영과 규제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탄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규제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동태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등장하기 어려운 핀테크 서비스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면 규제를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핀테크 랩, 핀테크 업체 방문을 통해 현장밀착형으로 규제를 발굴·정비하겠습니다.

② 둘째,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핀테크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이라도 금융업에 빠르게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Small License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역량있는 핀테크 기업에  
인내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IPO, M&A 등을 통해 성공신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

③ 셋째, 시장 자율적인 핀테크 혁신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Open Banking 시스템 구축 등 금융결제망 개방,  
P2P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P2P법」 법제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전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금융분야 新남방정책’을 마련하고  
신용정보, 결제 인프라 수출도 추진하겠습니다.

## IV. 마무리 말씀

---

부산의 한 역사민속학자는 부산을 일컬어  
용광로같은 바다도시라고 말했습니다.

외부문화가 들어오고 나가는  
동북아의 대표적인 해양관문으로써  
이질적 문화를 녹여 새롭게 탄생시키는  
부산의 역량을 표현한 말입니다.

핀테크는 IT와 금융이라는 다른 분야가 만나  
국민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산업입니다.

부산이 가진 변화의 에너지가 핀테크와 만난다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지평을 바꿀만한  
핀테크 유니콘이 충분히 탄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문을 여는 U-Space BIFC가  
대한민국을 빛내는 핀테크 유니콘의 산실이 되고,

부산시가 동북아의 해양수도를 넘어  
핀테크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